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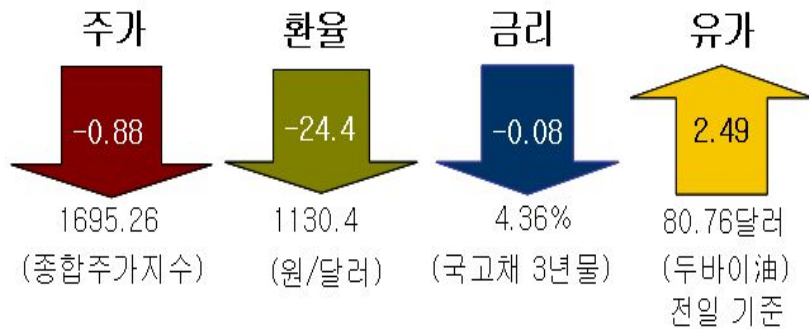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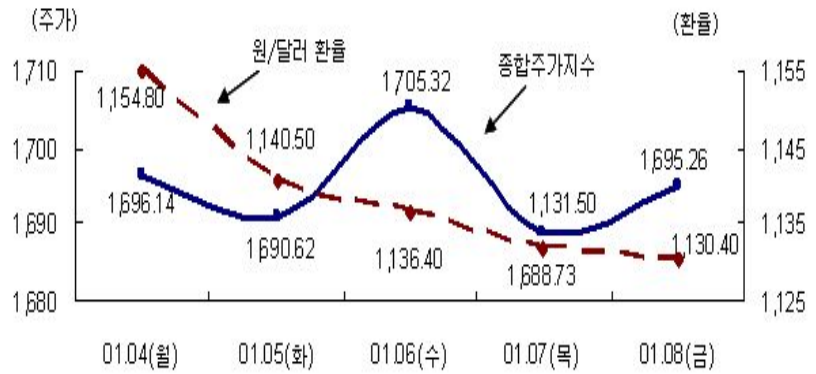
10-01(통권 381호)  
2010.01.08



■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01.04~01.08)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22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이 부 형 연구위원 외 (3669-4011, lb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개요) 2010년에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치·사회, 경제, 산업·경영 등 각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트렌드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 가운데 10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선정하였다.

#### (정치·사회)

##### 1) 新선거 문화(매니페스토; Manifesto)의 정착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Manifesto)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총선 및 대선으로 확산되어 정당 및 지역연고주의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란 기존 선거 공약과는 달리 구체적인 정책과 실시 기간,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및 타당성을 명시 한 후 사후 검증이 가능한 공약을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이 평가된다. 우선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지방경제 활성화 및 행정능력, 후보자의 도덕성이 후보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 공공 선거 관리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자체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0년에는 정책 선거를 지향하는 선거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다문화 사회 실험

올해에는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면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개방화 진전에 따라 국제적인 인적교류도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지난 2008년 9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래 같은 해 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책정하는 등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3년 대비 2009년 9월 말 현재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 노동인력도 20만 명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2000년 3%대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중이 최근에는 10% 이상 수준에 이르는 등 다문화 가정도 확산되고 있다. 향후에도 다문화 사회 축진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내 다문화 사회가 더 빨리 확산될 것이다.

#### (경제)

##### 3) '더 큰 나라' 건설 착수

올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나아가야 할 길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올해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더 큰 나라' 비전 확립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 선점 등으로 국제 이니셔티브를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중장기 'FTA 추진 전략' 마련 및 한중일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한 대외 개방 확대, IMF와 세계은행 지분 확대 및 이슬람 금융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법질서 확립,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 사회통합 제고 등을 통해 국격 제고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미래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新삼각 파도의 역습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출구전략의 본격화로 금리가 상승하는 이른바 3고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 글로벌 달러 약세로 국제원자재 시장에 대한 국제 투기자금 유입 가속 등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에는 지난 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금리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5) 워킹 푸어(Working Poor) 증가

최근 국내 경제가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일은 하고 있지만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즉, 워킹 푸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에도 공공부문의 임시직 증가와 민간의 비정규직 확대에 따르는 임금 소득 하락으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는 증가했으나 대부분이 임시직으로 민간부문의 안정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평균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워킹 푸어의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산업·경영)

#### 6) 선두 주자의 고뇌 증대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승자로 부상한 국내 기업들에게 올 해는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 최우선 경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선,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핵심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 신성장동력에 대한 R&D 및 M&A 활용이 주요 전략 과제가 될 것이다. 또, 경영시스템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 환경규제 대응 및 사회책임경영 강화와 같은 전략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 문화 측면에서는 일류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창의적인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 7) 관광의 주력 서비스업화 시동

2010년에는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관광부국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12월 발표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올해에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휴일 제도 개선, 가족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의 일상화가 추진될 것이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국, 일본 등과의 관광협력 등 신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명품 콘텐츠 선정에 착수하는 등 문화관광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개발된 전망이다. 한편,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이 개최 노력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 8) 녹색 벤처 기업의 부상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녹색 벤처 육성을 핵심으로 한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기금조성, 제도혁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녹색전문벤처 1,000개 육성 지원, 녹색 R&D 투자 지원 확대 등 녹색벤처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 녹색신기술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 등 벤처캐피탈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경영 능력 개발, 패자부활제 도입 등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 9) 무지개 경영(Rainbow Management) 확산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슈에 대한 표준화 지침인 'SR 26000'이 올 해 말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 무지개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지개 경영이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환경, 인권, 노동관행, 지배구조, 공정거래, 소비자, 지역사회를 기업 경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지칭한다. 무지개 경영의 확산은 과거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의 국제표준화 사례와 같이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같은 국격 향상의 계기로 활용될 것이다.

## 10) STAR형 휴가 문화 정착

2010년에는 성수기 피서지에서의 천편일률적인 휴가에서 벗어나 자기개발(Self-development), 변신(Transformation), 나홀로 여행(Alone), 방콕(Rest)과 같은 STAR형 휴가가 증가할 전망이다. 자기개발(Self-development)형은 최근 몇 년간 휴가를 이용하여 업무 외에 개인적인 관심사를 탐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변신(Transformation)형은 웰빙, 몸짱·얼짱 등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휴가를 기회로 외모 변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나홀로 여행(Alone)이란 대중의 번잡함을 피해 스스로가 목표하는 계획과 일정에 맞춰 혼자 여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콕(Rest)은 집에서 편하게 휴식하면서 가족과 화목을 도모하고 신체적 재충전을 추구하는 휴가를 말한다.

## 1. 개요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 정치·사회, 경제, 산업·경영 분야의 새로운 양상을 분석하여 2010년 각 부문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 2010년 국내 정치·사회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新선거 문화(매니페스토; Manifesto)의 정착, 다문화 사회 실험의 두 가지를 선정
- 국내 경제 부문에서는 ‘더 큰 나라’ 건설 착수, 新삼각 파도의 역습, 워킹 푸어(Working Poor) 증가라는 3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선두 주자의 고뇌 증대, 관광의 주력 서비스업화 시동, 녹색 벤처 기업의 부상, 무지개 경영(Rainbow Management) 확산, STAR형 휴가 문화 정착이라는 5가지 트렌드가 이슈화될 것임

<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

| 구 분   | 트 렌 드  |
|-------|--|
| 정치·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선거 문화(매니페스토; Manifesto)의 정착</li> <li>- 다문화 사회 실험</li> </ul>  |
|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큰 나라’ 건설 착수</li> <li>- 新삼각 파도의 역습</li> <li>- 워킹 푸어(Working Poor) 증가</li> </ul>   |
| 산업·경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두 주자의 고뇌 증대</li> <li>- 관광의 주력 서비스업화 시동</li> <li>- 녹색 벤처 기업의 부상</li> <li>- 무지개 경영(Rainbow Management) 확산</li> <li>- STAR형 휴가 문화 정착</li> </ul> |

## 2. 국내 10대 트렌드

### ① 新선거 문화(매니페스토; Manifesto)의 정착

- (의미)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평가 중심의 선거 문화(매니페스토; Manifesto)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추세 가 총선 및 대선으로 확산되어 정당·지역연고주의를 약화시키는 등 정치 혁신 원동력이 될 것임
  - 매니페스토(Manifesto) : 매니페스토는 기존의 정치 공약과는 달리 예산 확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담겨져 있어 실행 가능한 선거 공약을 말함
    - 구체적인 공약, 실시 기간,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정치 공약을 말함
    - 한국의 경우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었음
  - 지역 연고주의 쇠퇴 : 지역발전 전략 중심의 선거풍토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쇠퇴가 예상
  - 정당의 영향력 약화 : 총선·대선에서도 후보의 정책 공약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소속 정당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내용) 20년 가까이 지난 지방자치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공정선거 의식이 강화되고, 지역 내 검증된 인물의 영향력 강화
  - 정책중심 선거문화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확산
    - 2010년 6월 지방선거 후보선택 기준에 대한 여론조사<sup>1)</sup> 결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행정능력'이 36.9%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남
    - 또한 '후보자 도덕성'도 29.0%로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 헤럴드경제가 2009년 9월 케이엠 여론조사 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을 통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지방선거에서 혈연·지역 연고, 정당, 이념 등은 하위의 선택 기준

< 2010년 6월 지방선거 후보선택 기준 >

(단위: %)

| 지방경제 활성화<br>및 행정능력 | 후보자<br>도덕성 | 정권<br>심판론 | 후보자<br>공약 | 혈연 및<br>지역연고 | 정<br>당 | 이<br>념 | 기<br>타 | 없<br>음 |
|--------------------|------------|-----------|-----------|--------------|--------|--------|--------|--------|
| 36.9               | 29.0       | 9.3       | 9.1       | 1.9          | 4.3    | 3.3    | 3.0    | 3.2    |

자료 : 헤럴드경제신문, '국민의식 여론조사, 2010년 지방선거, 내고장 살리는 일꾼 뽑아야', 2009. 10. 5.

- **공정선거 의식** : 지방자치제도 도입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공정선거 관리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자체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부 행위 및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을 강력 단속
  - 시민사회단체는 소수의 이익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
  - 최근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설, 과도한 지출 및 지자체 운영 등의 문제 발생,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인물 중심 선거** : 지연·혈연·정당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도덕성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이 검증된 지역 내 인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등 행정능력이 검증되고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인물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sup>2)</sup>
  - 이에 따라 도덕성이 검증된 후보자들 중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하였던 경력을 지닌 자들이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연·혈연·정당 등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지역발전 공헌도가 높은 인물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개별 시민 또는 시민 단체, NGO 등 민간차원의 정치공약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심화되면서, 국내 정치문화에 있어서도 정책 선거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임**

2) 강원일보(2010.01.05)에 따르면 후보자 선택기준이 후보자의 도덕성(37.1%), 행정경험(27.6%) 순으로 나타나면서 2009년 10월에 실시하였던 여론조사 결과보다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음.



② 다문화 사회 실험

○ (의미) 결혼 이민자의 증가, 외국 인력의 급증 및 우리나라의 세계화 진전에 따라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여 국내 다문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

- 다문화(Multi-culturalism)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sup>3)</sup>를 의미

○ (내용) 국내 경제 규모 확대와 개방화, 정부의 제도 변화, 국제 교류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 국제결혼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르는 인력 부족 등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 가속화

- 국내 경제 규모 확대와 국제 인적교류도 급증 : 국내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 등 다방면에서 국제화의 진척으로 국제 교류가 급증하여 한국 사회의 국제화가 급진전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문화 사회 가속화가 이루어짐

- 정부의 제도 변화 : 정부는 다문화 사회의 급진에 따라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

·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sup>4)</sup>로 인해 국내 인력을 외국 인력이 급속히 대체하기 시작함

·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8.6), 다문화가족지원법(2008.9)을 제정해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교육지원 방안(2008.10),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12) 등의 관련 정책 수립

- 외국 유학생 수의 증가 : 고도 경제 성장의 지속으로 국력이 신장하고 이로 인해 외국 유학생이 급증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sup>5)</sup>은 2009년 9월말 현재 8만 2,000명에 달하며, 이는 2003년 9,700명에 거의 10배 가까이 급속히 증가함

3) 우종현, '다문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방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4) 2003년 8월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에 시행되었고, 동 법률에 의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더 자세한 내용은 e-나라지표를 참조, <http://www.index.go.kr>.

5) 외국인 유학생수는 유학(D-2)와 국어연수(D44)의 합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참조.

- **외국 노동인력 유입 가속화**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 법 개선 및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외국 노동인력 유입 가속화

< 외국 인력 고용 동향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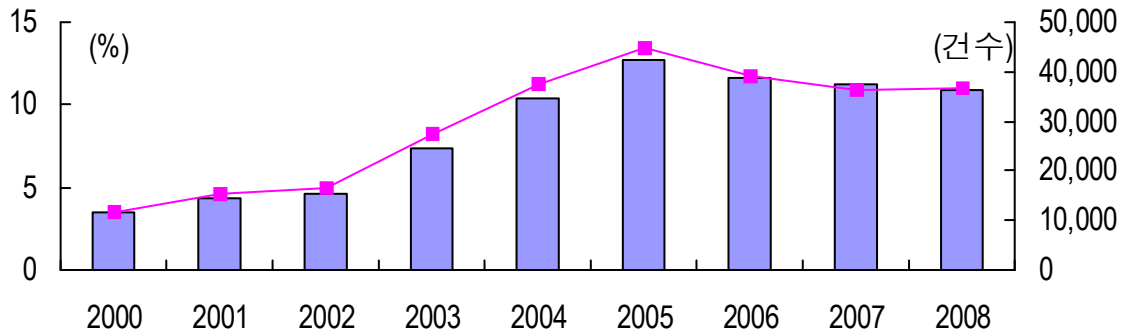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외국인 고용자수 총계 | 7,095 | 60,473 | 79,199 | 144,566 | 200,978 |
| 일반고용허가제     | 3,167 | 31,659 | 28,976 | 33,687  | 75,024  |
| 특례고용허가제     | 3,928 | 28,814 | 50,223 | 110,879 | 125,954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주 : 일반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인원을 말하며, 특례 고용허가제는 재외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취업한 인원임.

-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sup>6)</sup> 증가** :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녀수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 됨
  - 2000년까지 총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머물렀으나 그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국제결혼 비율이 13.5%까지 급증하였고 2008년 말 기준 11.0%를 차지

< 국제결혼건수와 비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2008년 혼인통계 결과」 보도자료.

- **(시사점)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이주 외국인 생활의 안정과 내국인의 다문화 사회 이해 증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문화·경제·지역정책을 통합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6) 법률이 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②'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음.

③ '더 큰 나라' 건설 착수

○ (개념)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2010년에는 이 주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전망

- '더 큰 나라'란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만들기의 3개 과제 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 발전 비전으로 이미 지난 2009년 11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주장한 바 있음

○ (내용) 올해에는 '더 큰 나라' 비전 확립을 위해 국제 이니시어티브 강화, 대외 협력 강화, 국격(國格) 제고, 미래 한국사회 대응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국제 이니시어티브 강화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 패러다임 주도 등을 통해 국제 이니시어티브를 강화할 전망

· 지난 2009년 9월 25일 열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가능 균형 성장,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최빈 개도국 지원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 이니시어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함

· 2009년 12월 15~18일 열린 제15차 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세계 최고 수준인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삭감으로 제시하고 국제 녹색성장 이니시어티브를 선점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녹색 R&D 투자 확대, 해상풍력, 2차전지 등 녹색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임

- 대외 협력 강화 : 대외 개방 확대, 국제 금융 협력 강화, 신흥 개도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등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임

· 정부는 '중장기 FTA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는 한편 한중일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인 등 올해에는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임

· 또, 2010년에 IMF와 세계은행 지배구조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지분을 확대하고, 국내 우수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확대, 이슬람 금융협력 강화 등 국제 금융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

- 한편, 올 상반기에 ‘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역별 경험전략’이 확대될 것이며, BRICs나 자원부국 그리고 아세안과 같은 신흥 개도국들과의 맞춤형 경험 사업의 적극적인 개발 등을 통해 신흥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임
- **국격(國格) 제고** : 법질서 확립,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 사회통합 제고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시켜 나갈 것임
  -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한 국민 공동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등 반부패·청렴 대책이 강화될 전망
  - 또, 성실 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 연장,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 조성,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 인상 등을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활성화가 꾀해질 것임
  -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멘토링 강화를 위한 휴먼네트워크 사업 추진, 다문화 도선과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미래 한국사회 대응** :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단계별 시기별 세부전략을 포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임신·출산 지원 강화, 다자녀·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 교육 지원 확대, 여성 육아 및 고용 지원 강화, 실버세대 친화 주택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
  - 한편, 이러한 미래 한국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올해에는 국가채무 총량 관리 실시,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임
- (시사점) 2010년에는 각 부문에 걸쳐 더 큰 나라 만들기를 위한 기반 형성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맞이하게 될 뿐 아니라 기업의 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전망

④ 新삼각 파도의 역습

○ (의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던 유가, 원화가치, 금리가 최근 국내외 경기 회복 기조와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동반 상승하는 현상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급격히 하락했던 유가, 원/달러 환율, 금리가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2009년 3월 45.6달러/배럴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상승하여 12월말 현재 78.04달러/배럴로 71.1% 급등
  - 원/달러 환율도 금융시장 경색으로 2009년 3월 1.453.4원까지 급등하였으나, 2009년 12월말 현재 1.164.5원으로 약 19.8% 원화가치 상승
  -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로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009년 3월 3.69%로 낮아졌으나, 2009년 12월말 현재 4.41%로 상승세 지속

○ (내용) 2010년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등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출구전략 본격화로 금리가 상승하는 3고 현상이 재현될 전망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 세계 경제 회복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등 글로벌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글로벌 달러 약세로 투기 자본 유입도 가속화 될 가능성이 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원유수요는 세계 GDP성장률 2.5%를 기준으로 2010년 86.4백만 b/d로 2009년 대비 16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0년에도 미국 경기회복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제 석유시장으로의 투기자본이 더욱 증가할 것임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은행의 2010년 이후 3년간의 물가목표제도 3±0.5%에서 3±1%로 확대됨

7) 한국석유공사, '최근 석유시장과 2010년 국제유가 전망' (2009.12.2).

- 원화 가치 상승세 지속 :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원화가치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임
  - 2009년 1~11월말 누적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11.5억 달러이며, 12월 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IMF(국제금융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 아시아로의 민간자금 유입 규모는 2009년 1,91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2,72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출구전략 시행 : 금융완화 정책 이후, 유동성 회수 차원에서의 출구전략 시행과 2009년 2%대로 낮았던 물가가 2010년에는 상승폭을 확대할 것임
  -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투입된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금융 긴축 정책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임
- 이에 따라, 2010년에 3고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
  - 2010년 유가는 연평균 85달러/배럴, 원/달러 환율은 1,110원, 국고채 3년물 금리도 4.50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유가, 원/달러 환율, 금리 월평균 변화 >

| 구분             | 리먼사태 이전<br>최고치    | 2008.9<br>(리먼사태) | 2009.3  | 2009.11 | 2010년(p) |
|----------------|-------------------|------------------|---------|---------|----------|
| 유가(두바이, 달러/배럴) | 131.3<br>(‘08.7월) | 96.3             | 45.6    | 77.7    | 85.0     |
| 원/달러 환율(원)     | 942.7<br>(‘08.1월) | 1,136.6          | 1,453.4 | 1,163.2 | 1,110    |
| 금리(국고채 3년물,%)  | 5.96<br>(08.7월)   | 5.81             | 3.69    | 4.32    | 4.50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주 : 1) 원/달러 환율은 종가기준임.

2) 2010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시사점) 3고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율 급변동에 따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원가 상승과 원화가치 급등으로 인해 제품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스마트 기업<sup>8)</sup>과 기업조직 패칭(Patching)<sup>9)</sup>을 확산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

8) 스마트 정부와 같이 불필요한 규모를 줄이고,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

9) 기업 구성요소의 지속적 재배열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 프로세스.

⑤ 워킹 푸어(Working Poor) 증가

○ (의미) 국내 경기가 빠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확대될 것임

- 워킹 푸어(Working Poor)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말함

○ (내용) 올해에도 공공부문의 임시직 증가와 민간의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임금 소득의 하락으로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확대될 것임

- 비정규직 규모의 확대 :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상황의 악화로 근로빈곤층을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이 확대됨

· 2007년 비정규직 비율이 35.9%에서 2008년 33.8%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34.9%로 다시 증가함

·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8년 8월 544만 명에서 2009년 8월 현재 575만 명으로 2008년대 대비 5.7% 상승함

· 특히, 동기간 정규직 증가율은 0.6% 증가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5.7% 증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5배 가까이 증가함

<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규모 >

(단위 : 천명, %)

|       | 2008.8 |       | 2009.8 |       | 증감(률)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 임금근로자 | 16,104 | 100.0 | 16,479 | 100.0 | 375(2.3) |
| 정규직   | 10,658 | 66.2  | 10,725 | 65.1  | 66(0.6)  |
| 비정규직  | 5,445  | 33.8  | 5,754  | 34.9  | 309(5.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9.8

-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증가 :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른 임시직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감소함

· 2009년 1~11월 전체 신규취업자수는 평균 7만 7,000명 감소하였지만, 동기간 공공행정 등의 공공 부문의 신규취업자수는 19만 5,000명 증가함

- 임금 하락 :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임금이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의 2009년 6~8월 평균임금은 12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하였으나, 정규직은 동기간 3.5% 증가한 220만원임
  - 이중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2.0%, 6.8% 감소한 131만원, 54만원으로 더욱 감소함
  - 특히, 2009년 8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2%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하였으나, 정규직은 1.6% 증가한 78.9%로 나타남

<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변화 >

(단위 : 만원, %)

|           | 2008. 6~8월 평균 | 2009. 6~8월 평균 |       |
|-----------|---------------|---------------|-------|
|           |               |               | 증감(률) |
| 임금 근로자 전체 | 184.6         | 185.2         | 0.3   |
| 정규직       | 212.7         | 220.1         | 3.5   |
| 비정규직      | 129.6         | 120.2         | -7.3  |
| 기간제       | 148.9         | 131.1         | -12.0 |
| 시간제       | 57.4          | 53.5          | -6.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9.8

- 워킹 푸어 증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근로빈곤층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정의할 수 있음
  - 근로빈곤층은 2006, 2007, 2008년 각각 220만 명, 202만 명, 195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상반기 209만 명으로 증가함
  - 특히,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2009년의 근로빈곤층 규모는 4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 워킹푸어의 규모 추이 >

(단위 : 만 명)

|       | 2006 | 2007 | 2008 | 2009.상반기 |
|-------|------|------|------|----------|
| 근로빈곤층 | 220  | 202  | 195  | 209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사점) 워킹 푸어의 증가는 견실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함



⑥ 선두 주자의 고뇌 증대

- (의미)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에서 글로벌 승자로 부상한 국내 기업들은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할 전망
  - 올해에는 일본 기업들의 반격과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승자의 자만에 빠지지 않고 1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
  - 그동안의 경영 전략이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집중했다면, 올해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후발업체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함
- (내용) 사업구조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 확립과 신성장동력 확충, 경영시스템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선진시스템 구축과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기업문화 측면에서 일등 기업문화 정착과 우수인재 확보 등을 추구

(1) 사업구조 측면

- 핵심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해외 공략 :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립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배양하고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야 함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에서의 영업 네트워크 확충이 필요함
- 신성장동력에 대한 R&D 및 M&A 활용 : 기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사업 관련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및 M&A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함
  - 신사업 관련 R&D 및 M&A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용이한 사업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2) 경영시스템 측면

- 글로벌 수준의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 :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선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세계 1등 기업으로서의 원천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지배구조 개선, 윤리경영, 투명경영의 실천을 위한 조직 역량 제고에 주력해야 함

- 환경규제 대응 및 사회책임경영 강화 :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 제정에 대응한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 강화 및 ISO 26000<sup>10)</sup> 제정 움직임 등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함

### (3) 기업문화 측면

- 일류 기업문화 정착 :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내면에 숨겨진 의식적 차원까지도 함께 일류로 변해야 함
  - 전 구성원들이 초일류로서의 글로벌 감각과 혁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일류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 발휘가 요구됨
- 창의적 우수 인재의 활성화 : 지속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창의적 인재의 체계적 육성과 우수 인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구축해야 함
  - 글로벌 지향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사 및 직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장려하는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세계 일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 >

| 구분    | 주요 전략             | 세부 내용                     |
|-------|-------------------|---------------------------|
| 사업구조  | 핵심 경쟁력 강화 및 해외 공략 | 시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공략 가속화     |
|       |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지속   | 신사업 관련 R&D 투자, M&A 전략적 활용 |
| 경영시스템 | 글로벌 수준의 선진시스템 구축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조직 역량 구축   |
|       |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 환경규제 대응 및 사회책임경영 강화       |
| 기업문화  | 일류 기업문화 정착        | 전 구성원의 초일류로서의 인식 고양       |
|       | 창의적 우수인재 활성화      | 창의와 혁신의 조직 분위기 확립         |

- (시사점)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 기업보다 한발 앞서 차별적인 경쟁력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 일등 기업으로서의 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선도 기업에 걸 맞는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 확립에도 힘써야 함

10) 기업은 물론, 정부,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의 실행 지침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말하며, 2010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⑦ 관광의 주력 서비스업화 시동

- (의미) **2010**년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미래 한국경제를 이끄는 산업의 하나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광 부국(觀光富國)으로 가는 큰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
- (내용) **2009**년 관광산업은 각종 악재 속에서도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11**월 정부는 이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실천전략을 발표하였는데 **2010**년에는 그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임
  - **2009**년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신종플루의 확산 등으로 관광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한국의 관광산업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음
    - 외래 관광객이 2009년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790만 명에 이르고 관광수지도 10월 현재 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9년 만에 흑자 예상

< 내국인 출국, 외래객 입국 그리고 관광수지 추이 >

(단위: 만 명, 억 달러)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e)  |
|--------|------|------|-------|-------|-------|-------|-------|--------|-------|----------|
| 내국인 출국 | 550  | 608  | 712   | 709   | 883   | 1,008 | 1,161 | 1,333  | 1,200 | 950      |
| 외래객 입국 | 532  | 515  | 535   | 475   | 582   | 602   | 616   | 645    | 689   | 790      |
| 관광수지   | 6.3  | -1.8 | -31.2 | -29.1 | -38.1 | -62.3 | -86.8 | -101.3 | -36.2 | 3.3(10월)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2009**년 **11**월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
  - 크게 관광의 일상화, 시장친화, 한국형 콘텐츠 강화 그리고 특별사업으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

- 관광수요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내수 진작→인프라 등 관련 투자 확대→외래 관광객 방문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
- 대다수 국민들이 관광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시작
  -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부터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 제공
  - 소외계층의 관광 참여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준비
  - 다양한 숙박시설 마련으로 관광수용태세가 점진적으로 개선
-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지원하는 조치가 착수
  - 단기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관련 기업에 특별지원프로그램이 제공
  - 장기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으로 규제가 완화
  - MICE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의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제공
  -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일본과 관광협력 강화가 모색
- 문화관광 콘텐츠개발을 통해 한국에 대한 매력을 증진시키는 작업이 시작
  -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명품 콘텐츠 선정에 착수
  - 기존의 관광자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정비작업이 개시
  - 문화와 테마를 바탕으로 전 국토를 새롭게 디자인 하려는 계획이 실행
  - 한국형 관광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 콘텐츠와 연결하고자 시도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환대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 시행
  - 한국이 외국인들의 안전한 관광을 보장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
  - 한국관광의 즐거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7가지의 이벤트를 추진
  - 외국관광객 유치증진을 유인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고 시행
- (시사점)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체 가치사슬에서 소외되는 부분 없이 고르게 그 영향이 갈 경우에만 최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부문별로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함

⑧ 녹색 벤처 기업의 부상

○ (의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벤처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제2의 벤처 붐' 조성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

- 과거로부터의 경험 :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IT 벤처 붐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녹색벤처 육성을 의욕적으로 추진
  - 정부가 녹색산업을 주요 신성장동력 분야에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
  - 녹색산업의 핵심 분야인 에너지, 바이오, 등 환경기술은 성숙도가 낮고 스탠더드가 형성되지 않아 선발주자(first mover)의 이점이 큰 분야이기도 함

- 정부 정책의 핵심 : 우리 정부의 녹색 벤처 육성 정책은 '녹색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되고,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부품, 소재 위주 50개 품목, 117개 기술을 중소 벤처기업형 유망 녹색 분야로 지정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46개, LED, 그린 IT 등 에너지 효율 향상 44개와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화 등 친환경 27개 분야 포함

○ (내용) 정부는 녹색 벤처 육성을 핵심으로 한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 기금조성 및 제도혁신을 추진

- 재정 지원 : 정부는 녹색벤처 육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 수립
  - 중소기업청은 2013년까지 녹색 전문 벤처 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
  - 최근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에너지, 탄소저감사업으로 확대할 계획 발표
  -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시장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크게 확대할 계획
  - LED 응용, 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투자는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 확대

- 벤처캐피탈 조성 : 정부는 녹색신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까지 3조 5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민간부문의 벤처캐피탈 조성을 유도
  - 중소기업청은 2010년 중에 모태펀드에 1,800억 원을 출자해 2012년까지 순수 녹색 벤처펀드만 1조 3천억 원으로 규모 확대
  - 경기도는 250억~300억 원 규모의 녹색성장펀드를 조성, 도내 태양열, 풍력, 지력, LED 등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관련 업체 지원
  - IBK와 옥터스 컨소시엄은 연말까지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성장(에너지) 펀드를 조성 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 기술 등에 투자
  - 한화기술금융은 9월 말 총 40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펀드 출범

< 국내 녹색 벤처 캐피탈 조성 현황 및 계획 >

| 구분       | 시기      | 규모             | 대상 분야                              |
|----------|---------|----------------|------------------------------------|
| 중소기업청    | 2010년 중 | 1조 3,000억 원    | 녹색벤처 집중 지원                         |
| 경기도      | 2009. 8 | 250~300억 원     | 경기도 내 태양열, 풍력, 지열, LED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
| IBK 컨소시엄 | 2009. 9 | 1,500~3,000억 원 | 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 기술 등    |
| 한화기술금융   | 2009. 9 | 400억 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 집중 투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언론 보도자료 정리.

- 기업가정신 고취 : 정부는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잠재적 열정 촉발, 경영능력 개발, 패자부활제를 도입
  - 고등 교육기관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커리큘럼도 만들 예정임
  - 사업이 실패한 경우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연대보증제를 개편해 창업 위험을 줄일 계획임
- (시사점)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벤처 육성정책으로 녹색기술 발전과 제품 시장이 확대가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버블형성 및 붕괴(boom & bust)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임

⑨ 무지개 경영(Rainbow Management) 확산

○ (개념) 무지개 경영(Rainbow Management)이란 사회적 책임<sup>11)</sup>과 관련된 7가지 핵심주제(환경, 인권, 노동관행, 지배구조, 공정거래, 소비자, 지역사회)를 기업 경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지칭함

- '무지개 경영'은 환경을 강조하는 '녹색경영'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킨 개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SR 26000')으로 잘 표현됨
- 'SR 26000'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 공공기관, 노조, 시민단체 등 조직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7대 원칙, 7대 주제, 관련 이슈 등에 관하여 2010년 말에 도입할 예정인 표준화된 지침(guidance)임

○ (내용) '무지개 경영'의 특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다는 데 있으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7가지 원칙과 환경, 노동, 인권 등 7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됨

- '무지개 경영'의 출현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에 기초함
- 세계화의 진전,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대, 인권-노동-환경-분식회계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기업의 증가된 영향력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아가 주주 고객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요구함

< 세계화, 위기, 그리고 사회적 책임 >



- '무지개 경영'의 7대 원칙 : ①책임성, ②투명성, ③윤리적 행동, ④이해관계자 존중, ⑤법규 존중, ⑥국제적 행동규범 존중, ⑦인권 존중

11) Carroll(1991)에 따르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책임을 포함하여 법률 준수(법적 책임), 윤리적 기준 준수(윤리적 책임), 지역사회 공헌(재량적 책임) 등 4가지 사회적 책임을 지님.

- ‘무지개 경영’의 7가지 핵심 주제 : ①지배구조, ②소비자, ③환경, ④인권, ⑤노동관행, ⑥공정거래, ⑦지역사회

< ‘SR 26000’ 의 7대 원칙, 7대 주제, 관련 이슈 >

| 7대 원칙          | 7대 주제 | 관련 이슈  |
|----------------|-------|--|
| - 책임성          | 지배구조  | - 사회적 책임을 감안한 의사결정 과정 및 구조<br>-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 소수 집단 배려<br>- 양방향 의사소통 구조의 마련  |
|                | 소비자   | - 공정한 마케팅, 공정한 계약 관행,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br>-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분쟁 해결, 동물 복지<br>- 고객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전기 등 필수 서비스의 접근 보장   |
| - 투명성          | 환 경   | - 폐수 및 폐기물의 재활용, 공해방지,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br>- 기후변화 대응, 배출가스 삭감, 친환경기술의 개발   |
| - 윤리적 행동       |       | - 자연환경의 보호와 복구, 생물다양성  |
| - 이해관계자 존중     | 인 권   | - 차별금지와 취약집단 배려<br>- 인류에 대한 범죄 및 고문 금지<br>- 인권 위험상황의 관리, 범죄의 공모를 회피, 불만 해소<br>-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근무관련 기본권리 등 |
| - 법규 존중        | 노동관행  | - 채용시의 차별금지, 고용조건, 고용관련 기본권리<br>- 고용시의 보건안전, 단결권, 단체교섭권, 경력개발과 교육훈련<br>- 비정규직의 기준, 개도국 협력업체의 아동노동 금지                 |
| - 국제적 행동 규범 존중 | 공정거래  | -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금지<br>- 부패방지, 책임 있는(투명한) 정치 참여, 공정 경쟁<br>- 개도국에서의 약탈적 임금 및 약탈적 구매가격 금지                               |
| - 인권 존중        |       | - 영향권 범위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조(예: 조달청의 녹색구매)  |
|                | 지역사회  | - 지역공동체에의 참여,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과 지역문화 기여<br>-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창출과 능력개발, 기술개발<br>- 재산과 소득의 창출, 지역주민들의 보건, 지역에의 재투자                 |

- ‘무지개 경영’의 확산은 과거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의 국제표준화 사례에서와 같이 점차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國格 향상의 계기가 될 것임

· ‘SR 26000’을 도입하는 기업은 2020년까지 국내에 3만개, 세계적으로 100만 개에 달할 것이며,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 인증, 보고서 작성 및 검증 등 관련 사업 규모도 ‘20년까지 국내에서만 약7천억 원 정도에 이를 전망

- (시사점) 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SR) 전담조직의 구성, 경영 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전개, ‘SR 26000’ 인증,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정보 공개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객 충성도와 임직원 만족도,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⑩ STAR형 휴가 문화 정착

○ (개념) STAR형 휴가란 성수기 피서지에서의 천편일률적인 휴가에서 벗어나 자기계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휴가의 질(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휴가 시기와 휴가활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임

<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여부 >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실시  | 37.9% | 36.0% | 50.8% |
| 미실시 | 62.0% | 64.0% | 49.2%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호.

○ (내용) 2010년에는 자기계발, 나홀로 여행, 방콕 등과 같은 STAR형 휴가가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 지난해 금융위기와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향후에는 휴가장려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

· 과거에는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걱정이 높았으나 지난해 금융위기와 신종플루로 기업들이 휴가 사용을 권장하면서 실제 휴가일수가 증가하였음

· 또한 2010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의 봄·가을 방학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주5일제 수업과 대체공휴일 제도 등이 추진될 예정임

- 이 같은 휴가의 제도화로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휴가 계획과 내용이 다양해지는 STAR형 휴가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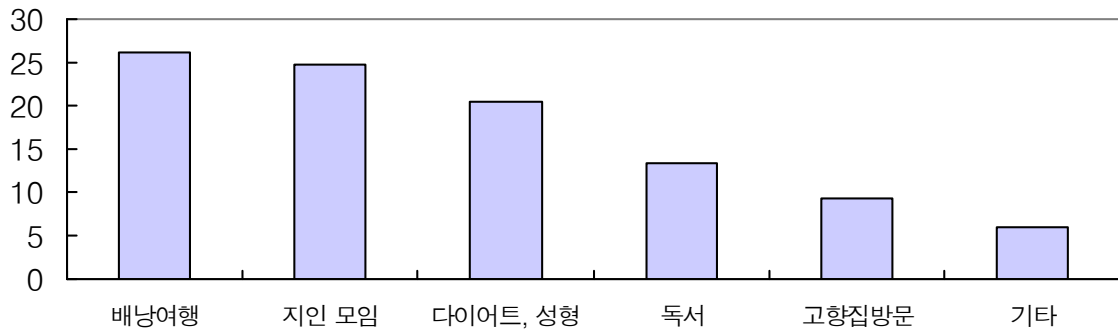
- '자기 계발(Self-development)' : 최근 몇 년간 휴가를 이용하여 업무 외 개인적인 관심사를 탐구하는 '자기 계발'이 휴가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음

· 휴가를 이용하여 평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내지는 공부, 체험학습을 계획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늘고 있음

- '변신(Transformation)' : 웰빙, 몸짱·얼짱 열풍이 불면서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휴가를 기회로 외모 변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가 동안 하고 싶은 활동으로 다이어트 및 성형의 비중이 20.5%를 차지하여 상위권에 올랐음

< 2009 하계 휴가 계획 설문조사 결과 >



자료 : 대한민국축제대상, '2009 여름기획설문 [여름휴가]'.

- '나홀로 여행(Alone)' : 대중의 번잡함을 피해 스스로가 목표하는 계획과 일정에 맞춰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나홀로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음
- 2005년 조사결과 13.6%정도였던 나홀로 여행 비중이 2008년에는 26.6%까지 증가하였음

< 연도별 해외여행 동반자 형태 >

| 구분    | 2005년 | 2007년 | 2008년 |
|-------|-------|-------|-------|
| 친구/동료 | 55.1% | 48.7% | 41.2% |
| 가족    | 30.9% | 30.7% | 31.1% |
| 혼자    | 13.6% | 19.4% | 26.6% |
| 기타    | 0.3%  | 3.9%  | 2.5%  |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 2008.

- '방콕(Rest)'족 : 방콕족이란 집에서 편하게 휴식하면서 가족과 화목을 도모하고 신체적 재충전을 추구하는 휴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함
-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 불황으로 스테이케이션(stay와 vacation의 합성어로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음

○ (시사점) STAR형 휴가의 정착으로 개인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는 국내 여가관련 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여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가 인프라가 확충되고 관광업·요식업 등 여가관련 산업의 질이 개선된다면 여가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음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 구분 | 2007<br>년 | 2008<br>년 | 2009년 |      |      |       | 2009년 |      |     | 2009<br>(E)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 미국 | 2.1       | 0.4       | -0.7  | 1.5  | -2.7 | -5.4  | -6.4  | -0.7 | 2.2 | -2.7        |
| EU | 2.7       | 0.7       | 0.7   | -0.3 | -0.4 | -1.9  | -2.4  | -0.2 | 0.4 | -4.2        |
| 일본 | 2.3       | -0.7      | 5.6   | -8.1 | -4.0 | -10.2 | -11.9 | 2.7  | 1.3 | -5.4        |
| 중국 | 13.0      | 9.0       | 10.6  | 10.1 | 9.0  | 6.8   | 6.1   | 7.9  | 8.9 | 8.5         |
| 한국 | 5.1       | 2.2       | 5.5   | 4.3  | 3.1  | -3.4  | -4.2  | -2.2 | 0.9 | 0.2         |

주 1) : 2008, 2009년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10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구분               | 2008년<br>말 | 2009년   |         |         |         | 2010년   |           |
|----|------------------|------------|---------|---------|---------|---------|---------|-----------|
|    |                  |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 1월8일    | 전주비       |
| 해외 | 미국 10년물<br>국채 금리 | 2.21       | 2.66    | 3.54    | 3.30    | 3.83    | 3.82    | -0.01%p   |
|    | 엔/달러             | 90.80      | 98.98   | 96.33   | 89.91   | 92.93   | 93.51   | 0.58¢     |
|    | 달러/유로            | 1.3992     | 1.3244  | 1.4039  | 1.4646  | 1.4332  | 1.4308  | -0.0024\$ |
|    | 다우존스지수           | 8,776      | 7,609   | 8,447   | 9,712   | 10,428  | 10,607  | 179p      |
|    | 닛케이지수            | 8,860      | 8,110   | 9,958   | 10,133  | 10,655  | 10,682  | 27p       |
| 국내 | 국고채 3년물<br>금리    | 3.41       | 3.94    | 4.16    | 4.39    | 4.41    | 4.36    | -0.05%p   |
|    | 원/달러             | 1,259.5    | 1,383.5 | 1,273.9 | 1,178.1 | 1,164.5 | 1,130.5 | -34.0원    |
|    | 코스피지수            | 1,124.5    | 1,206.3 | 1,390.1 | 1,673.1 | 1,682.8 | 1,695.3 | 12.5p     |

주 : 1월 8일 해외 지표는 전일(1월 7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구분    | 2008년<br>말 | 2009년  |        |        |        | 2010년  |        |
|---------|-------|------------|--------|--------|--------|--------|--------|--------|
|         |       |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 1월8일   | 전주비    |
| 국제 유가   | WTI   | 44.61      | 49.65  | 69.08  | 70.28  | 79.35  | 82.65  | 3.15\$ |
|         | Dubai | 36.45      | 46.80  | 71.85  | 65.33  | 78.06  | 80.76  | 2.70\$ |
| CRB선물지수 |       | 229.54     | 220.40 | 249.96 | 259.39 | 283.38 | 290.53 | 7.15p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